

부조리극 속 여성의 상처와 치유 - 「행복한 나날들」을 중심으로

류다영
중원대학교

Wounds and Healing as a woman in *Happy Days*

Da-Young Ryu

Division of Global Languages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조리극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중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유일한 희곡 『행복한 나날들』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간의 내면 아이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인물의 상처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녀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복한 나날들』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위니(Winnie)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고통을 직면함으로써 그녀는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겪는다. 위니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은 그녀의 남편 윌리(Willie)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남편 윌리의 행동 변화는 그녀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니는 그녀의 남편 윌리와 관계를 통해 그녀의 마음속 고통과 상처에 직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ounds and healing of the character as a woman in Samuel Beckett's play, *Happy Days*, through a microscopic approach by focusing on her inner I, and to study how she tries to heal her wounds. Winnie in *Happy Days* spends hard times not recognizing her internal wounds and pains. By facing her wounds and pains, however, she starts the process of self-healing, mainly through communicating and sharing her sorrows with her past inner child. Winnie's positive and optimistic character appears to change Willie's behaviors, which may be a positive sign that her wounds and pains will possibly be healed. In conclusion, Winnie has a chance to face her inner wounds and pains while interacting and communicating with her husband Willie, and she is slowly heading for healing her wounded inner I.

Keywords : Absurd Play, Samuel Beckett, Inner I, Inner Child, Wounds, Healing

1. 서론

연극의 여러 장르 중에서 부조리극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동안 거시적인 차원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기존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반연극(anti-theatre)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부조리극은 모든 인간의 삶과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조리하다고 가정하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는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1]. 이에 따라 그 형식과 기교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형화되고 잘 짜인 연극의 기법과는 많이 다르며, 해체된 인간 세계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이념을 논하지 않는다. 즉 부조리극은 현대문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와 삶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Tel: +82-43-830-8651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January 28, 2019

Revised February 28,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의 문제들이 무질서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소재로 삼은 연극 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조리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개개인의 내면의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조리 문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루는 미시적인 차원으로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1906-1989) 작품 중 유일하게 여성이 등장하는 『행복한 나날들』(Happy Days)을 통해 주인공 위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상처를 알아보고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베케트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본질을 탐구한 작가이다. 그는 물질에 가치를 두고 외형적 껍질에 묻혀 왜곡된 삶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곤 하였다.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베케트는 작품 속에서 전반적으로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정체성 소멸로 이어진다. 베케트의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든 것이 무(nothingness)에 근접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무대 위의 현존재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들의 존재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2]. 그들은 운명에 맞서 이를 이겨내려고 하지만,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좌절하며 자신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구세주와 같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의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인들의 비극적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베케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대적, 상황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대인들 모습과 닮아 있다. 즉,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통 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극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다루었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탐구하여 그 일상을 통해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극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베케트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남성만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남성을 일반화하여 인간의 일반적인 소외와 고통을 표현하였는데, 『행복한 나날들』에서 유일하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여성의 입장에서 인간 소외와 고통을 바라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내면 자

아를 연구하고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학자, 존 브레드쇼(John Bradshaw)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여주인공 위니의 내면 자아의 상처와 이에 대한 치유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를 비롯한 다른 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그녀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여성적인 관점에서 위니의 상처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위니의 비극적 상황과 낙관적 태도

『행복한 나날들』은 베케트의 기존 작품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충격적인 무대 이미지를 보여준다. 막이 오르게 되면 중산층의 분위기를 가진 중년 여성 위니(Winnie)가 사막과도 같은 대지 위에 허리까지 몸이 묻힌 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잠을 자다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깬다. 위니가 갇혀있는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서는 그녀의 남편 윌리(Willie)가 신문을 읽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주인공 위니는 자신의 몸이 땅 속에 매몰되어 가는 비관적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낙관적인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의 낙천적이고 활발한 성격은 비극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녀의 이러한 희극적 행위는 그녀가 흙더미 속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위니의 이러한 낙관적 태도에 관하여 에슬린(Martin Esslin, 1918-2002)은 “죽음과 무에 직면한 위니의 쾌활함은 인간의 용기와 고귀함의 표현이며, 따라서 극은 관객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한다[3]. 땅에 묻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은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또 다른 멋진 날이야”[4]라고 시작하는 위니의 첫 대사는 절망적인 상황을 낙관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려는 그녀의 의식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조리극의 특성상 위니의 이러한 말은 공허한 외침으로 볼 수도 있으며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그저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지고 견뎌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위니는 마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치유라도 하는 듯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염원을 기도를 통해 이야기 한다. 기도가 끝나고 곧 자신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더듬어 꺼내면서 “정말 고칠 수도 ... 고칠 수도 없어”[4]라고 말하며 물건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준다. 고장이 나서 치유가 될 수 없는 위니의 마음을 표현하듯 그녀의 주변에는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 고칠 수 없는 물건들 뿐 이다. 이어서 그녀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4] 하루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다가 “나는 정말 불행한 여자”[4]라고 말하지만, 이내 이렇게 고마운데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그친다.

위니가 혼자 하는 말 중에는 고전에서 인용한 대사가 많은데, 그 중 ‘진홍색 깃발’, ‘창백한 깃발’은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의 5막 3장에서 로미오(Romeo)가 약은 먹은 줄리엣(Juliet)을 발견한 뒤 하는 대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듯 누워 있는 줄리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니는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에서 산 채로 묻혀 있는데, 줄리엣과의 비교는 사랑에 실패한 여인의 비애를 보여줌과 동시에 왜 빠져 나오지 못하는지도 알 수 없이 흠더미 속에서 의무감으로 곁 혼생활을 하고 있는 위니의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낸다[5]. 이와 같이 위니의 몸이 땅 속에 반쯤 매몰되어 있는 것은 그녀의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위니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환자가 편하게 누워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리지 않고 말로 표현하듯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위니의 모습은 행복해보이기까지 한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방 속에서 물건들을 꺼내가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상담을 할 때 적용하는 자유연상법처럼 무작위로 집어 든 물건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 물건들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로 엮어냄으로써 위니는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무의식 영역까지 내려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이 움직여서 의식으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는 정신 역동이라고 할 수 있다[6].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의 정신을 치료하는 것을 흔히 역동 정신치료라고 하는데, 억눌려 있는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놓는 위니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니에게는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 다시 말해서 자명종에 의해서 깨어난 그녀가 기도와 양치질을 하고, 칫솔과 약병에 쓰인 글을 읽고, 약을 먹고, 머리손질을 하고, 손톱 손질을 하고, 화장을 하는 등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그녀가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위니의 이러한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은 그녀가 하루를 보내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에서 블라디미르가 “습관은 대단한 마취제이다”[7]라고 말하듯 습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베케트는 이와 같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습관들이 단순히 고통을 잊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말한다[8].

습관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복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은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힘들고 불편한 감정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소하고 불편한 감정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들, 즉 습관적인 일에 매달려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9]. 따라서 습관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10]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니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상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고,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시간을 채워 나간다.

위니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그녀의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하는 것인데, 그녀는 이러한 단순한 소지품에 의미를 부여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폴(Margaret Paul)에 의하면 내면아이가

1) 자아가 쪼개지고 있는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위협과 위험을 처리하는 일이다. 자아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채택함으로써 위협을 다스릴 수 있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고 날조하고 왜곡하면서 인성의 발달을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을 일컬어 자아의 ‘방어기제’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어기제에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몸부림의 무의식적인 ‘억압’, 스스로를 속이는 ‘부인’,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반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반동형성’, ‘자기 합리화’,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퍼붓는 ‘전치’, 자신의 공격적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승화’, ‘자기 파괴’, 감정을 억압하는 ‘중독’ 등이 있다.

성인자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내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국 성인자아가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의존하게 된다[11].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적인 행동이나 물건에 집중하는 것은 브래드쇼의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들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존적인 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관계에서 주로 생겨난다고 하였다[9]. 가정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결국 자기 내면에서 자기존중감을 키워 나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정을 벗어난 바깥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시도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니의 고통은 위니의 가정, 즉 남편인 윌리와 사이에서 여성으로서 충분히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2.2 자살의 유혹과 삶에 대한 의지

위니의 가방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어서 본인도 그 내용 전부를 모를 정도이다. 그 안에는 칫솔과 치약, 안경, 확대경, 권총, 립스틱, 거울, 모자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들어 있다. 비싸고 귀중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건들은 위니의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거울은 크기가 작으면서 손잡이는 너무 길고, 손톱을 다듬는 줄칼도 다루기에 너무 길다. 파라솔 또한 햇볕을 가리기에 부적합하며, 약병도 병목이 지나치게 좁고 깊다. 게다가 치약과 립스틱, 약병 등 대부분의 물건들은 거의 고갈이 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가방은 그녀에게 있어 남편 윌리를 대신 할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와 같은 안도감을 준다. 그래서 그녀는 윌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가방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매번 확신을 한다. 이렇게 자신이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확인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남편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에게 의존하고 그의 행동과 반응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위니의 태도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판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니의 상황은 남성에 의존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보기 보다는 땅에 묻혀 여성으로서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처지에서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남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니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그녀의 가방 속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권총이다. 1막 초반에서 위니는 권총을 꺼내고 그것을 겨냥본 뒤 재빨리 키스를 하고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1막 중반쯤 지나면 그녀가 권총을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진다. 위니는 권총을 꺼내들고는 “이렇게 무거우면 ... 남은 탄환과 같이 밑바닥 쪽에 가라앉아 버릴 것 같지요, 그런데 어쨌서, 늘 맨 위에 떠 있는 건가, 브라우닝총²⁾처럼”[4]이라고 말하며 권총이 가방의 맨 위에 있는 것에 의문을 품는다. 윌리가 권총을 가지고 스스로를 결말지게 되지 않도록 권총을 빼앗아 가달라고, 즉 자신이 권총으로 자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 무거운 권총이 그녀의 가방 가장 아래쪽이 아닌 가장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방이 그녀의 내면인 무의식을 의미한다면 가방의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가장 위에 떠올라 있는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권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그녀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죽음, 즉 자살에 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윌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듯이, 권총을 주머니 밖으로 꺼내는 그녀의 행동에서 위니 역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녀의 비극적이고 고통스런 삶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삶에 대한 애착 또한 강해진다.

위니는 1막의 후반부에서 “어느 날엔가 이 지면이 내 가슴을 뒤덮어 버릴 때, 나는 스스로 내 가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 가슴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지요”[4]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땅속으로 묻힐 것이라 예상하는데, 2막에 가서는 목까지 땅에 묻히게 되고 이제 자신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 지면에 몸이 묻히게 되는 것을 자신

2) 존 브라우닝이 디자인한 총을 지칭함. 권총(pistol), 산탄총(shotgun), 소총(rifle), 기관총(machine gun) 등이 있으며 이 극에서는 위니가 가방 안에 넣어놓고 꺼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바 권총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의 가슴을 덮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위니는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또한 불가능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 위니는 절망에 빠진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되어 가고, 이러한 고통을 지속하는 것보다 위니는 이제 평화롭고 영원한 잠을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죽을 수도 없다. 그녀 옆에는 계속해서 권총이 놓여 있지만, 자살은 단순한 유혹일 뿐 그녀는 결코 이를 실행하지는 못한다.

2.3 불행한 상황 속 치유의 가능성

위니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잊기 위해 자주 과거의 경험으로 도피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녀는 주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그녀가 말하는 ‘중고품’, ‘구닥다리’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그녀의 아쉬움의 표현이며, 땅에 묻히기 이전의 정상적이고 안락하던 일상적 삶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회상을 일종의 퇴행 현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회상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직면하는 위니의 모습은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 된다. 브래드쇼는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의 핵심요소를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험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것은 내면 아이이기 때문에 인간의 핵심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 따라서 위니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 역시 자신의 내면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니 나의 첫 무도회! (오랜 사이.) 두 번째 무도회! (오랜 사이. 눈을 감는다.) 첫 키스! (사이. 윌리가 신문지를 넘긴다. 위니 눈을 뜬다.) 손슨씨라는 분, 아니면 존스톤 씨, 아니 존스톤이라고 불렀을 거야. 굉장히 덩수룩한 수염, 시들어 말라 버린 풀색이었지. (정중한 태도로.) 마치 생강과 같은 색! (사이) 다락방 안에서, 하지만 어느 다락방이었던가. 우리 집에는 다락방이 없었고, 그이의 집에도 그런 건 절대로 없었어. (눈을 감는다.) 눈에 떠오른다. 산더미 같은 화분. (사이.) 참피나무 거죽다발. (사

이.) 천정의 대들보 부근에 저녁의 어둠이 깃들어 오고.[4]

남편 윌리의 무관심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위니는 예전 무도회에서의 다른 남성과의 키스를 떠올리며, 자유롭게 춤을 출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내어 그 행복감에 젖어든다. 그녀가 그녀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을 이와 같이 여성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남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이다. 하지만 윌리는 위니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위니가 하는 말을 짧게 반복하거나, 통명스럽고 짜증 섞인 대답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다.

비록 윌리가 위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기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위안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다시 사라지지만 마세요”[4]라고 그에게 부탁할 뿐이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위니에게는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쉬지 않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녀가 하는 말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도 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끔 윌리가 그녀의 말에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의사소통과 애정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니가 “당신은 머리의 머리카락을 단수 취급해요, 아님 복수로 취급하나요?”[4]라고 물어볼 때, 윌리가 “단수야”[4]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하며 “어머니, 당신 오늘은 말대꾸를 해주셨네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4]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잘 들어주는 일이야말로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값진 선물이며, 상대방에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경험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바로 그 경험을 안겨준 주인공이 된다[12]. 이러한 관점에서 위니와 윌리의 부부관계를 살펴봤을 때, 위니가 하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끝까지 위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윌리의 존재 자체는 위니가 그녀의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니에게 있어서 윌리는 그녀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윌리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일 것이다. 따라서 위니는 혼자 남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윌리가 편하게 잠을 자는

것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윌리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위니는 항상 윌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남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하며 질문을 하는 위니의 속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아직 매력적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내면아이와 내면어른의 연결을 통해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내면 유대 치유 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심리학자 초피크(Erika Chopich)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자아는 나 자신이 그런대로 괜찮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들의 승인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핍상태, 즉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타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13]. 또한 외부의 승인에 대한 결핍 상태는 거부에 대한 뿌리깊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승인을 원하는 사람의 지배를 낳는다. 즉 사랑을 받고 싶은 타인에게 종속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승인과 사랑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윌리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위니는 자신의 외모를 항상 가꾼다. 휴 속에 반쯤 묻힌 상태이지만, 그녀는 진주목걸이로 자신을 치장하고,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의 얼굴을 꾸민다. 그리고 항상 거울을 들고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위니 윌리, 옛날에 나 매력 있었어요? (사이.) 내가 매력 있었을 때가 있었나요? (사이.) 질문을 오해 마세요, 당신이 날 사랑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이제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이 날 매력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예요 - 어느 순간에.[4]

거울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항상 거울을 들고서도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한껏 치장을 하지만 자신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거울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윌리에게 의존하여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위니는 윌리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단지 그녀는 그녀가 남편에게 아직 매력적인지를 묻고 있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아직 여성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며, 이것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녀는 부부사이의 사랑 유

무와 관계없이 둘 사이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을 치장하고 여성적 매력을 어필하려 하는 것은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윌리를 자신의 옆에 존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위니는 남편 윌리에 대해 애증의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남편을 사랑하고 그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라며 자신의 옆에 있어주길 원하는 반면, 그에게 명령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지시하며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남편에 대한 이러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는 그녀의 성격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 자신의 말에 대해 인내하고 들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다가 다음 순간에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4]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편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 여러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윌리가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며 그가 자신을 떠나버린 뒤의 상황을 얘기하려고 갑자기 윌리가 자신을 앞으로 떠날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려 한다. 불안하고 연약한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위니는 윌리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그를 통제하고 압도하려고 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위니의 이러한 현상을 ‘반동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자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아에게 압력을 가하여 본능이 불안을 발생시킬 때, 자아가 그와 대립하는 본능에 집중함으로써 공격적인 충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14]. 즉, 무의식적 욕구 충동을 억압만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그것과 정 반대의 경향을 강조함으로써 대항하는 심적인 태도 또는 습성이라고 볼 수 있다. 위니는 윌리를 사랑하고 그와 부드러운 관계를 원하지만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숨기고 그에게 강압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해 윌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윌리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던 위니는 1막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윌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진다. 그녀는 윌리에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예전에 자신이 반해버린 손과 무릎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녀의 요구에 따라 윌리는 메리 위도우(Merry Widow)의 2중창인 왈츠 ‘당신을 사랑해’(I love you so)의 곡조에

따라 짧게 흥얼거리다. 하지만 위니는 자신이 가장 꿈꾸는 것은 윌리가 자신의 앞쪽으로 와서 그녀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살아주는 일이라고 고백한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은 알아보기 못할 정도로 달라졌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내 곧 윌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한다. 위니의 마음 속 깊은 상처는 남편인 윌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윌리가 신문을 펼쳐 읽으며 위니 앞에 나타나자 위니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아아, 오늘은 행복한 날이군요! 오늘도 또 다른 행복한 날이 되겠네요!”[4]라고 말한다.

2막의 후반부에서 윌리가 위니를 ‘윈’(Win)이라고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것은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윌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온 자신의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며, 위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위니는 “아아, 정말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도 또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4]라고 말하며 오르골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는 위니는 행복한 표정이다. 위니는 미소를 지으며 윌리를 바라보고, 윌리는 옆드려 기면서 위니를 쳐다본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극이 끝나는데, 위니가 그렇게 원했듯이 정면으로 윌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윌리가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에 따른 외로움은 위니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윌리가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앞으로의 그들의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브래드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이고 성숙한 부부관계의 이미지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5].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위니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해주는 윌리와 오르골 곡조에 맞춰 노래 부르는 위니는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각기 다른 악기로 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행복한 날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윌리가 위니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마주 보으로써 앞으로의 그들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화해를 하는 듯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들의 앞날에 비관적인 일들이 발생하더

라도 서로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마치 윌리가 그 동안의 위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보이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 그들의 부부관계에 놓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보여주며, 답답하게 억눌려 있던 위니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치유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전통적인 극 형식과 구조를 따르지 않는 부조리극은 언어 해체와 줄거리의 부재라는 반연극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실험적이고 독특한 기법으로 그만의 극 세계를 이끌어 갔다. 그는 극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무겁고 어둡게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고 고통 받는 현대인들의 비극적 절망감에 빠져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현실 상황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생에 대한 즐거움과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고,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처에 대한 치유는 또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또한 마음인 것이다.

베케트는 『행복한 나날들』의 극중 인물 위니를 통해 그녀의 무의식 속의 깊은 여성적 상처와 아픔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그녀가 일반적으로 그녀의 남편 윌리에게 하는 대화는 논리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상반되고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그녀의 내면 자아의 상처와 고통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위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외부 세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며,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가방 속 물건에 집착 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여성상을 지니고 있는 위니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남편 윌리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잊기 위해서 그녀는 자주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 자신의 몸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녀는 자주 표현하는데, 브래드쇼에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의 내면아이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위니가 처해있는 상황은 인간으로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상당히 비극적이지만 그녀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녀는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표현한다. 비록 그녀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무의미하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물건에 집착하며 진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에 대한 희망과 정열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녀의 성격으로 인해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윌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위니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나날을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의 처지는 견디기 힘든 비극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와 삶에 대한 의지로 인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간 것이다. 물론 극 후반의 이러한 상황만으로 그 동안의 위니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부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됨을 암시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속 고통도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해볼 수 있다.

References

- [1] Junseo, Im. *Lineage and Aesthetics of Anti-theater - focus on Absurd Plays*. 94, Salim, 2004.
- [2] Chanhyeok, Pang. "A Comparative Study of Meta-drama Strategy in the Plays of Shakespeare and Beckett."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Vol.7 No.1, pp.121-146, 2014.
DOI: [10.15732/jecs.7.1.201404.121](https://doi.org/10.15732/jecs.7.1.201404.121)
- [3] Martin Esslin. *Theatre of the Absurd*. 480, London: Cox & Wyman Ltd, 1968.
- [4] Samuel Beckett. *Happy Days*. New York: Grove Press, 1961.
- [5] Jeongmin, Yum. "Surviving on Stage: The Metatheatrical Tactics in *Happy Days*."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60 No.4 pp.201-219, 2016.
DOI: <http://dx.doi.org/10.17754/MESK.60.4.201>
- [6] Doen, Chung. *Freud's Chair - A psychoanalytic stories facing hidden I*. 296, Woongjin Thinkbig, 2009.
- [7]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128, New York: Grove Press, 1954.
- [8] Samuel Beckett. *Proust*. 206, New York: Grove Press, Inc., 1931.
- [9] John Bradshaw. *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288, New York: Bantam Books, 1992.
- [10] David Statt. *The Concise dictionary of psychology*. 212, Cleo, 1999.
- [11] Margaret Paul. *Inner Bonding: Becoming a Loving Adult to Your Inner Child*. 240, New York: HarperOne, 1992.
- [12] Jeaun, Oh. "Impact of Childhood Wounds on Couple Relationship".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6 No.3, pp.1055-1070, 2005.
- [13] Erika J. Chopich & Margaret Paul. *Healing Your Aloneness: Finding Love and Wholeness Through Your Inner Child*. 208, San Francisco: Haper & Row, 1990.
- [14] Sigmund Freud.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518,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4th printing 1968.
- [15] John Bradshaw. *Bradshaw on: The Family (A New Way of Creating Solid Self-Esteem)*. 230, Fl: Health Communications, Inc., 1988.

류 다 영(Da-Young Ryu)

[종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과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글로벌언어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